

국립6.25전쟁남북자기념관
2021 특별기획전 활동지

예술, 전쟁을 겪다.

Art, Go Through War

기획 통일부 국립6.25전쟁남북자기념관
개발 윤소라, 최제정, 최하나
제작 아이디어스폰
발행 2021년 12월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153 (10808)
누리집 www.abductions625.go.kr
문의 031.930.6000



6·25전쟁 "납북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뜻과 다르게 북한에 끌려가서 살게 된 사람을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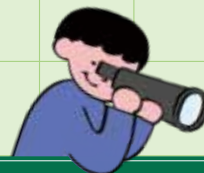


‘전쟁, 예술을 겪다.’는 어떤 전시일까요?

6·25전쟁 중에 납북된 문화·예술인들이 남긴 문학·그림·영화·음악 작품을 살펴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입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까지 계속되었어요.



전시 및 관람 안내

3부 있다

전후문학
아버지 가신 길



1부 펼치다

우리말과 글 연구
새로운 시대의 학문
쏟아지는 인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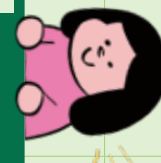
3부 있다

2부 꺾이다

1부 펼치다

2부 꺾이다

자유 속의 이분법
납북된 문화·예술인
피난지의 삶
전쟁을 기록하다



1

펼치다

01

전시실에서 아래의 책을 찾아서 관찰한 후, 지워진 부분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책 제목을 완성해 보아요.



『새 사리갈말 말광』 이기인, 1948년

생물학자 이기인이 일본어·영어로 된 생물학 단어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쓴 사전이에요.
'사리갈말=생물학', '말광=사전'이라는 뜻입니다.



02

전시실에서 아래의 책을 찾아서 관찰한 후, 책 제목을 적어보아요.

책 제목 :

글쓴이 : 김기림(金起林)

출판일 : 1948년

내용 : 김기림의 시집 초판본이에요.
『새노래』는 일제강점기 이후 나라를 되찾은 감격과 앞으로 펼쳐질 새나라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어요.

초판본은
'첫 번째로 인쇄된 책'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후,
1945년 8.15광복
이전까지 시대를 말해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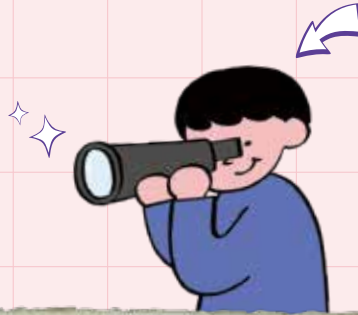


찍이다



03

전시실에서 아래의 그림을 찾아서 관찰한 후,
실제 작품과 다른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해 보아요.



〈투게〉 폴 자쿨레, 1950년

프랑스 작가 폴 자쿨레의 판화 작품이에요.
6·25전쟁이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는 두 닭이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자유 속의 이분법



04

전시실에서 아래의 책을 찾아보고,
알맞은 책 제목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文學(문학)》 창간호,
조선문학가동맹, 1946년
8·15광복을 전후로
활동한 문학 단체에서
만든 잡지로 광복의
기쁨을 담은 여러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창간호는
새로운 신문이나 잡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
'회'를 뜻하는 단어예요.



납북된 문화·예술인



05

전시실에서 아래의 책을 찾아서 관찰한 후,
알맞은 내용을 찾아 연결해 보아요.



『七面鳥 (칠면조)』 여상현, 1947년

여상현의 시집이에요.

-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8·15광복 후의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한 시들이 실려 있어요.

여상현은 1950년 8월 서울에서 납북되었어요.



『困憊의 書 (곤비*의 서)』 최영수, 1949년

경향신문사 기자였던 최영수가

- 문화계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적은 수필집이에요.

최영수는 1950년 7월 서울에서 납북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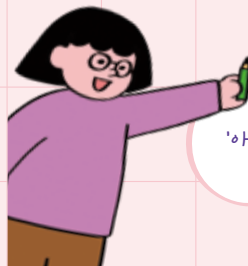


『鉛筆의 奔流 (연필의 분류)』 김찬승, 1950년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찬승이

- 8·15광복 이후 우리 사회의
현실을 기록한 수필집이에요.

김찬승은 1950년 7월 서울에서 납북되었어요.



*곤비(困憊)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하다'는
뜻이에요.

06

전시실에서 아래의 책을 찾아서 관찰한 후, 지워진 부분에
어떤 악기가 있었는지 상상해 보고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김해송 작곡집』

동인음악출판사, 1941년



김해송은 작곡가이자
가수였는데 6·25전쟁 중에
납북되었어요.

전쟁을 겪다



07

전시실에서 아래의 잡지를 찾아 관찰한 후, 표지 속 학생의 모습이 현재 학생과 어떤 점이 다른지 적어보아요.



《學友(학우) 3학년》 민중서관, 1952년

다른 점:

옷차림, 모자, 머리 등을
잘 살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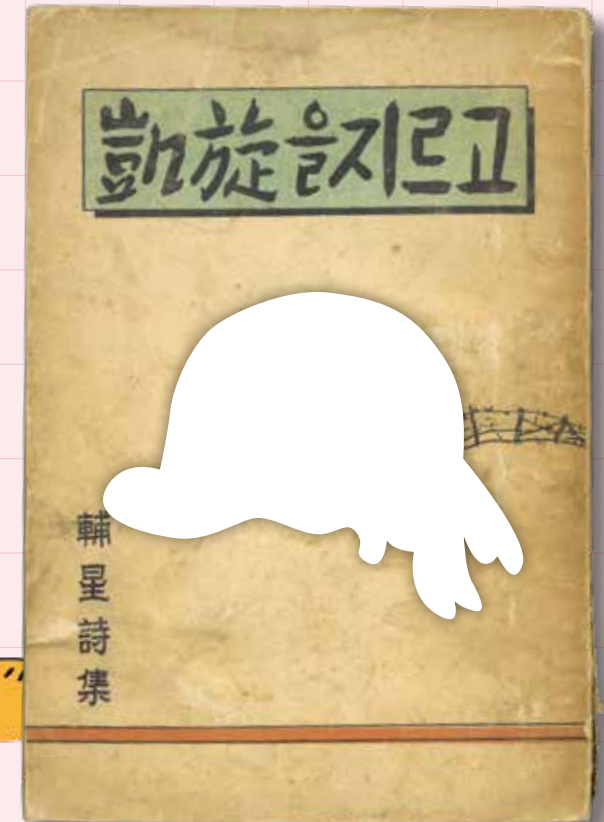


전쟁을 기록하다



08

전시실에서 아래의 책을 찾아 지워진 부분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표지를 완성해 보아요.



『凱旋(개선)을 지르고』 이병선, 1954년

이병선의 시집이에요. 6·25전쟁 중 전우와 나눈 감정, 평화를 향한 마음을 주제로 한 시들이 담겨져 있어요.



3

있다



09

아래는 납북된 ()를 그리워하며 쓴 시와 그림을 모아 펴낸 책이에요. 알맞은 가족사진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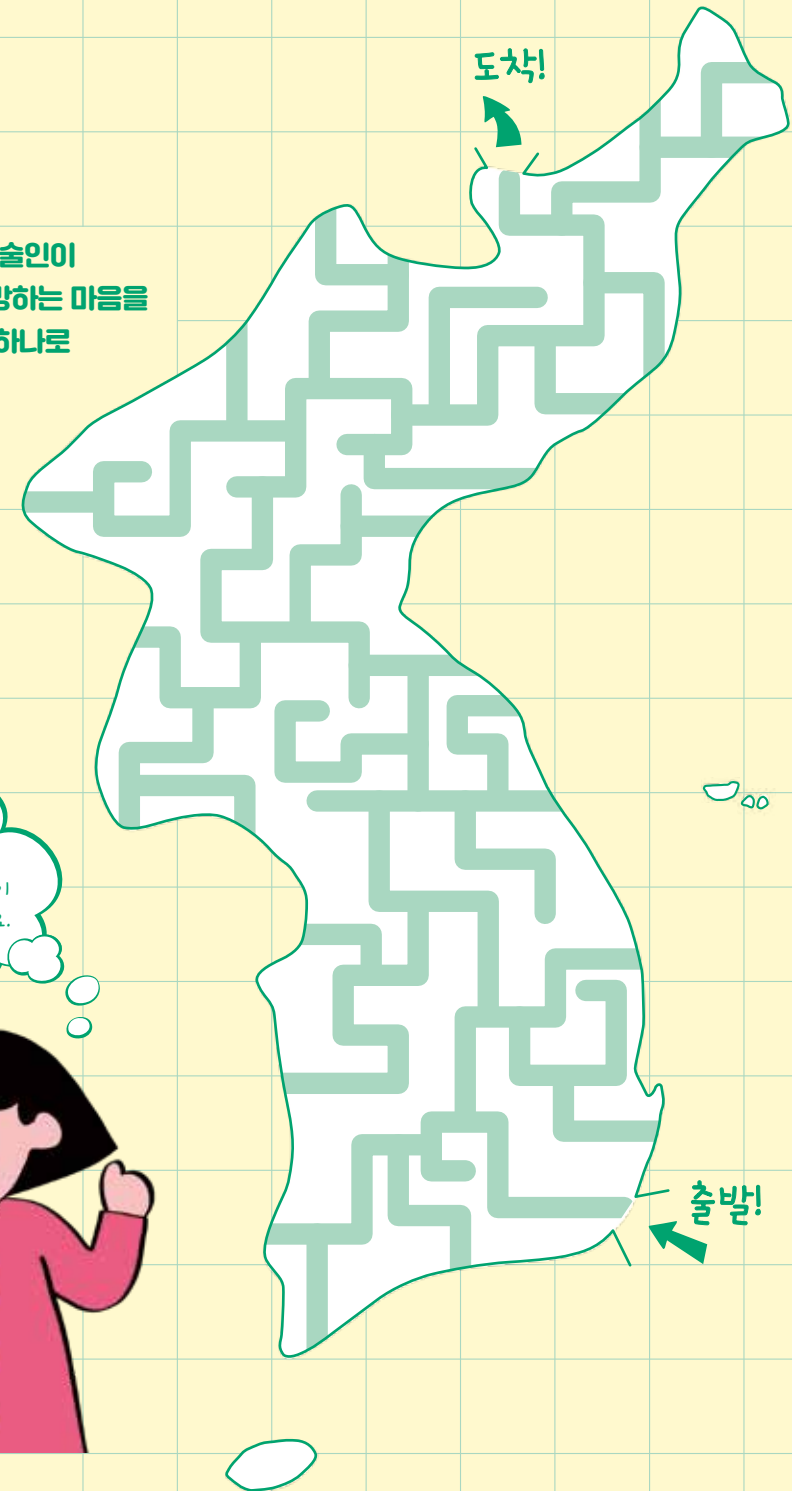
최영재는

납북자 최영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돌아 글과 그림에
재능이 많은 분이랍니다.



10

납북된 문화·예술인이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해 보아요.



하루빨리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함께 희망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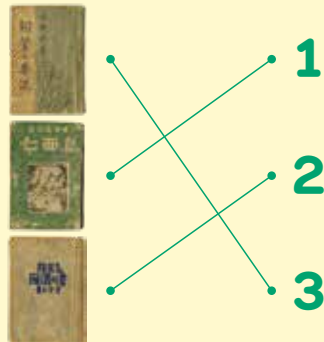
『마지막 가족사진』 최영재, 2016년

문제 정답

03

왼쪽 : 핑크색 모자
오른쪽 : 노란색 모자

05



08

교복, 모자, 머리모양 등

10

아버지 (최영수)

꿈

“아버지아……!”

아버지 품에 안겨 목 놓아 우는데
꿈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달아날까 봐 끌어안고 흐느끼는데
또 꿈이다

“이건 꿈이 분명해요. 어서 꿈 밖으로 나가요.”

아버지 손을 힘껏 당겨 보지만
이 역시 꿈이다

하도 많이 속아서
이젠 꿈에 아버지를 만나도

놀랍지도
반갑지도 않다.

『마지막 가족사진』

글쓴이 최영재 (납북자 최영수의 아들)

